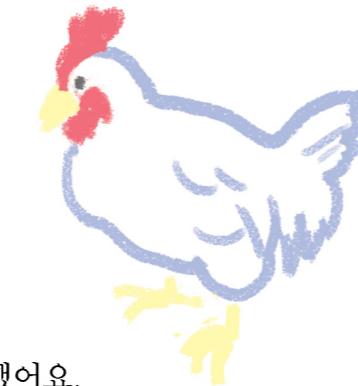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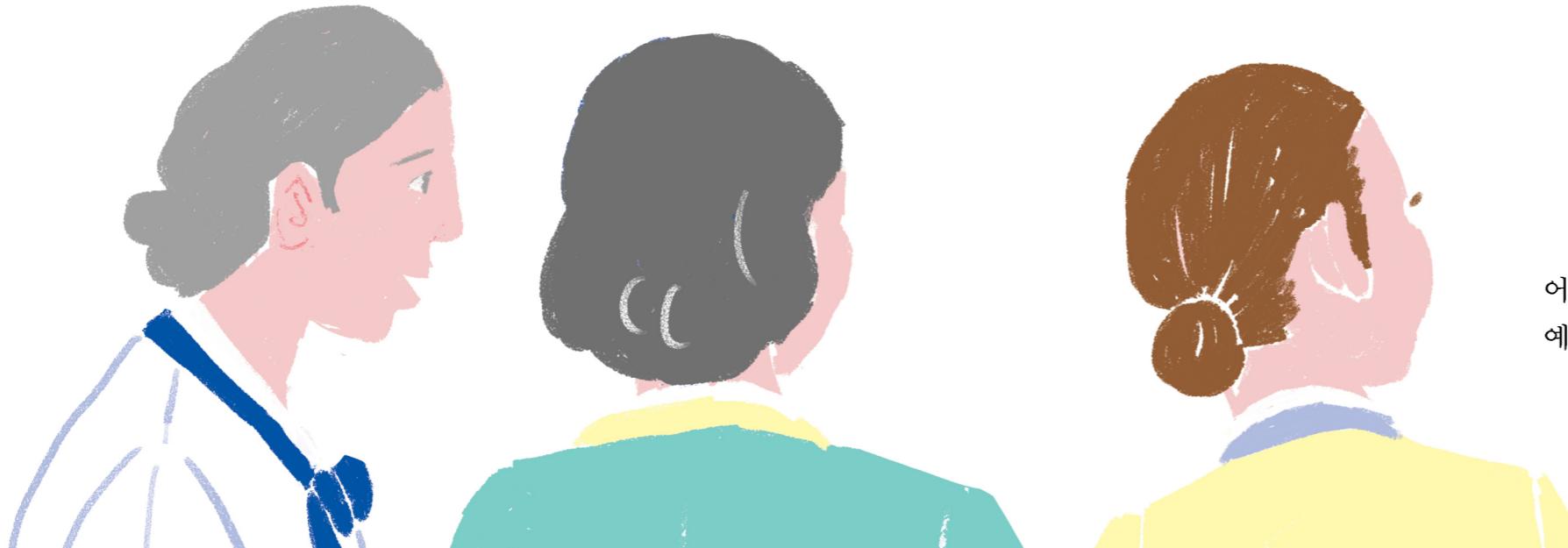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어린 참어머님은 아장아장 걸으며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했어요.
그런 참어머님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 어쩜 한 살밖에 안 된 애가 저리도 인사성이 밝을까요.”
“뉘 집 딸이에요? 눈, 코, 입 하나하나 안 예쁜 곳이 없네요.”



“참 곱지요? 저 아이가 학자잖아요.
한 살이 되기도 전에 걷고, 말도 또박또박 그렇게 잘한대요.”
“어머나, 학자 엄마는 좋겠다. 저렇게 예쁘고 영리한 딸이 있어서.”

어린 참어머님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만큼
예쁘고 총명하게 자랐어요.



“할머니,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옥수수는 이렇게 따는 거야. 한 번 해 보렴.”
“이렇게요?”
“그렇지!”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집 뒤뜰에서 자란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땊어요.

“어머니, 옥수수가 많으니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우리 학자는 참 착하기도 하지.”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함께 딴 옥수수를
한 솥 가득 삶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오고 가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 뒷동산에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하하하하 우습다 졸고 있는 할미꽃
아지랑이 속에서 무슨 꿈을 꾸실까 ♪

“허허허. 우리 학자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우리 학자는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도
노랫소리 같았잖아요. 호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는 율동도 해 볼까요?”
“그래그래.”

가족들은 모두 사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예쁘게 율동하는 어린 참어머님을 보며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단다.”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 손을 잡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학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세요.”

“아멘.”

기도를 마치신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드리는 어린 참어머님을 소중하게 안아 주셨어요.

“예쁘기도 하지, 하나님의 귀한 따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참어머님은 온 세상에 부러
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딸로,
하늘의 신부로 소중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던 분이
어린 참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섯 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하늘의 신부가 될 운명을 타고났구나.”



참어머님이 여섯 살이 되는 해였어요.

이 무렵,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남한으로 가라.”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 주고 계신단다.”

